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최 용 남

자재공급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것은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올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재공급사업은 중요한 경제조직사업의 하나입니다.》(《김정일전집》 제10권 532페이지)

자재공급사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공장, 기업소들에 보장하여주는 경제조직사업이다.

원료, 자재, 기계설비는 생산의 필수적요소이다. 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기계설비가 현대화됨에 따라 원료, 자재,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 경제가 장성하는데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야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고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원료와 자재, 설비를 중요단위들에 집중하여 공급하는것이다.

우선 국방공업부문에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선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자재공급을 우선시하면서 군수공장,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

국방공업은 인민경제의 어느 부문보다도 질 좋고 다양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요구하는것만큼 민수공업보다 앞세워 군수공장, 기업소들에 자재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량과 질, 공급기일을 어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요부문에 대한 자재공급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가운데서 해당 부문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주원료와 기본자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여 떨구지 않고 쓸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 화력발전소운영에 필요한 석탄, 석탄공업부문에는 강재와 폭약, 금속공업부문에는 정광과 전기, 철도운수부문에는 전기와 강재, 화학공업부문에는 석탄과 전기, 경공업부문에는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농업부문에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전력, 석탄, 압연강재, 알곡, 수산물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자재공급사업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자재공급규률과 질서를 바로세워야 원료, 자재, 기계설비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계약제도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원료와 자재를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주고 받게 하여야 공장, 기업소들이 원료, 자재걱정을 하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자재공급사업에서 계약제도를 실시하면 수요자기업소가 자기에게 필요한 원료, 자재를 공급자기업소에 주문하고 공급자기업소는 받은 주문에 따라 원료, 자재를 공급해줌으로써 자재공급사업이 원만히 실현된다.

계약제도에서는 계약이 엄격한 법적성격을 띠므로 주문자는 원료, 자재를 어김없이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반드시 계약의무를 리행할 책임을 진다. 만일 공급자가 계약된 원료, 자재를 제기일에 품종규격별, 재질별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법적, 경제적, 행정적제재를 받게 된다.

원료, 자재를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우에서 지령을 하는 방법으로 분배하도록 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다.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계약에 따르는 자재공급사업의 첫 공정이며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계약은 수요자기업소와 공급자기업소사이에 생산물을 주고받는 책임과 의무를 규제한다.

계약체결에서는 수요자기업소가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공급자기업소가 그것을 공급한다는것을 합의한다. 여기서 합의하는 내용은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의 품종, 규격, 재질, 수량과 가격, 대금결제, 수송방식, 납입기일 등이다. 그리고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쌍방이 지는 보상조건도 계약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계약의 중요성으로 하여 계약을 옳게 맺어야 계약에 의한 자재공급사업을 잘할수 있다.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작성시기에 체결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자재공급계약은 중앙계획지표와 기업소계획지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체결한다.

중앙계획지표에 대하여서는 국가로부터 해당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에 대한 배정, 공급통제수자를 받은 조건에서 그에 기초하여 지정된 수공급자들사이에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중앙계획지표의 계획화사업을 국가계획위원회가 장악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기업소지표에 대하여서는 계획작성시기에 수공급자기업소들이 서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대상하여 합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것은 기업소지표에 대하여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통제수자를 받지 않고 자체로 계획을 세우는것과 관련된다.

공장, 기업소들의 계약체결에서는 중앙계획지표의 생산 및 공급통제수자에 따르는 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은 다음 기업소계획지표에 대한 계약을 맺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집행과정에는 계획에 예견되지 않은 생산과제가 제기될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수요에 대하여서는 기업소계획지표는 물론 중앙계획지표라 하더라도 지표분담에 관계없이 기업체들이 주동적으로 계약을 맺을수 있다.

수공급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은 법적성격을 가진다. 수요자기업소는 계약에서 합의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기업소는 계약된 물자를 의무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닌다.

공급자기업소들은 수요자기업소로부터 주문받은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합의한대로 품종과 규격, 재질에 따르는 생산물을 납입기일안에 합의된 수송방식과 가격대로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공급자기업소가 계약조건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여 수요자기업소가 경영에서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벌금 또는 위약금을 수요자기업소에 물어주어야 한다.

계약에 의한 자재공급제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는 우월한 공급방법이므로 계약제도를 바로 실시하면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은 국가계획과는 별도로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필요한 물자를 상업적형태로 직접 주고받는 생산물의 류통령역이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하는 목적은 공장, 기업소들이 여유가 있거나 부족되는 원료와 자재, 부속품 같은것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하자는데 있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면 공장, 기업소들이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부족한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를 해결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다.

자재공급사업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 참가하는 대상, 교류되는 생산물의 품종, 물자의 가격, 대금결제방식을 바로 정하며 그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 참가하는 대상자는 사회적소유의 기업체들이며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 교류되는 생산물의 원천은 계획화된 교류몫과 남는 물자이며 그 품종은 허용된 설비, 원료, 연료, 자재, 부속품, 소공구 등이다. 그것은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 사회적소유의 기업체들에 잠재되어있는 예비를 동원하여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물자를 해결하는데 그 사명이 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은 말그대로 소비품이 아니라 생산수단류통의 보충적공간이다. 여기서는 식량, 간장, 된장, 옷과 같은 일체 소비품은 교류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 교류되는 물자의 가격은 국가의 가격제정원칙에 따라 정하며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하여 현금 또는 무현금결제방식을 리용하도록 한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은 영리적목적이 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 부족한 물자를 보충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공간으로서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성격을 띤 조직적인 류통령역이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은 지역적단위로 시, 군별로 조직하며 국가경제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면 공장, 기업소들이 여유있는 물자를 사장시키지 않으며 부족한 물자를 편리하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금회전을 촉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다.

현시기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팔아 번돈을 가지고 원료, 자재를 자체로 사다 쓰도록 하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에 리용하는 원료, 자재가운데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것도 있고 생산량이 적어 필요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는것들이 있다. 그런

원료, 자재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무역권을 주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팔아 번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원료, 자재를 직접 사다 쓰게 할수 있다.

이 방법은 공장, 기업소들이 수출품생산을 늘여 수입을 얻는데도 좋고 필요한 원료, 자재를 주동적으로 마련하는데도 좋은 방법이다. 뿐만아니라 국가자금지출을 줄여 국가부담을 덜어주는데도 리롭다.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한 제품을 무역회사에 넘겨주어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원료, 자재를 사다줄것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를 해결하자면 수속기간과 수출입거래관계로 인한 일정하게 긴 시간이 요구되며 수요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종, 품질의 원료, 자재를 정확히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수 있다.

기업체의 생산규모가 작고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수요가 얼마 안되는 공장, 기업소들은 무역회사들에 의뢰하여 필요한 원료, 자재를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생산규모가 크고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량이 많은 기업체들에서는 무역권을 가지고 자체로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팔아 번 돈으로 필요한 원료, 자재를 사다 쓰는것이 유리하다.

무역권을 가지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팔아 번 돈으로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사다쓰게 하는 제도를 바로 실시하면 해당 기업체들이 높은 창발성을 가지고 수입원자재를 주동적으로 해결해나가게 된다.

모든 경제부문 일군들은 자재공급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산정상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할것이다.